

사설

전통사찰 또 규제받아선 안된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다시 한 번의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타의 기존 종교 시설에 대하여 증, 개축까지를 인정하는 이 법을 그대로 전통사찰에 적용할 경우,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전통사찰의 복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전통사찰의 보호에는 언제나 규제가 따르게 된다. 무분별한 개발 등에 의해 전통사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증, 개축 및 신축은 위의 두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의 전통사찰 역시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는 보다 전형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격 상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의 설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마저도 규제한다면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라는 관광자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많은 공사들이 지닌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한 복원도 있었고, 전통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예도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의 엄한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규제를 더함으로써 문화의 전승을 저해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사장시키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다니...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8일 이른 아침 서울고속도로(주)와 LG건설이 수행중인 비구니 스님을 폭행하고 천막법당 일부를 파괴하는 어처구니없는 훼손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철야기도 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인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가사가 찢기고 안경이 부서졌으며 인대가 늘어나 오른쪽 팔과 허리를 못쓰고, 한 비구니 스님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입원 치료 중이다.

이 사건의 발생 직후부터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연대는 물론 전국 불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주도한 폭력배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다음달 5일 조계사에서 전국의 스님과 신도 1만여 명이 동참하는 '자연환경보존과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범불교도 결의대회'를 개최

키로 하는 등 범불교 차원에서 강력 대처한다는 자세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정부 또는 대기업과 불교, 대기업과 환경단체, 시민연대간의 대결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라며, 모두가 속히 냉정을 되찾길 기대한다. 서로가 법원 결정을 존중하면서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회사와 폭력배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부상당한 스님들에 대해 피해 보상과 파괴기물의 변상조치가 공개 사과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산 관동도로의 경우 지금 설계대로 도로가 뚫릴 때 터널 환풍구가 사찰 인근에 설치되고 수백이 끊겨 식수 조달이 어려워지며 새 도로로 인해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등 사찰측과 시민연대 등의 지적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교계, '주5일 근무' 발빠른 대응

7월시행대비 주말 참배객 수련프로그램 개발 박차

'템플스테이'도 연중 포교사업으로 개편

올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가 확실시됨에 따라 종교계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 28일까지 노사정(勞使政) 협상을 계속하되 그 성패에 관계없이 의원입법 형태로 3월 임시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교계는 신도들의 종교 생활 변화에 대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1월1일부터 중앙종무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전격 실시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휴무가 길어지면 산사에 참배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수련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에 나서는데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월드컵 개최기간에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템플스테이(Temple Stay)'를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해 불교문화 포교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템플스테이로 확보된 공간과 인프라를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신도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3월중 포교활동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 시범사찰 선정(템플스테이 운영사업) 중 10여곳 + 특별프로그램 운영 사업 10여곳 및 실시, 4월

초 심포지엄 개최에 이어 종합자료집 발간 및 보급에 나선다. 한편 각 사찰들도 주5일제를 대비해 산사 수련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해인사는 문화 유산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을, 서울 봉은사는 가족단위의 2박 3일 수행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해남 대둔사는 2박3일 일정의 주말 수련회 '대둔사 새벽 숲길'을 실시한다. 개신교계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교회 출석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걸맞는 목회 및 선교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는 이에 대비, 올 7월 서울 양재동에 가족치료실과 상담실, 가족문화관 등을 갖춘 가정사역 전문빌딩 '헤밀리아'를 건립해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개별 교회 차원에서 △주말 가족캠프 등 도시-농어촌 연계 프로그램 개발 △수양관 등을 활용한 1박 2일 수련 예배 △부부 성장학교 △친교와 봉사 강화 △미래 중심 프로그램 등을 준비중이다. 천주교 역시 다양한 봉사활동 및 신자들의 재교육 기회 확대, 주말 수련 등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는 2005년까지 96억원을 들여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대를 성서와 휴양마을, 천주교박물관 등을 갖춘 문화관광지(바이블 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igkim@buddhanews.com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스님 49재 법회가 17일 해인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암스님의 해인과 지도력, 수행심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해암스님 49재 법회 봉행

해인사서, 사리친견 3월28일까지 연장

조계종 제 10대 종정 해암당 성곡대종사 49재 법회가 17일 해인사 구공루 앞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범종을 시작으로 봉행된 49재 법회는 해인사 주지 세민스님의 추모법요,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의 행소개, 해암스님의 생전 육성법문 청취와 원로회의 의장 법전스님의 추도사, 총무원장 정대스님, 수좌대표 진제스님, 교구본사주지연합회장 법장스님,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등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법전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하여 무언의 가르침을 참고하고 또 참고해야 할 것이다"며 해암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해인사는 현재 보경당에서 공개되고 있는 해암스님의 사리친견을 부처님 열반절인 3월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영문표기 "Jogye"로

국제교류위, 사찰안내표지 한·영·漢 명기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현재 'Chogye'로 쓰이고 있는 '조계종'의 영문표기를 'Jogye'로 통일시키고 한자도 삼입키로 했다. 교류위원회는 이와같은 새로운 영문표기 안건을 차기 중회에 상정하는 한편 사찰의 새로운 안내표지도 한글·영어·한자의 공동명기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4월 26일 경 불교국가와의 우의 및 관계 증진을 위해 태국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몽고 인도 캄보디아 주한대사 초청만찬 행사를 갖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승가학원 올 예산 71억3천만원 확정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정대)은 20일 오후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 승가학원 예산을 71억3천3백80만원으로, 중앙승가대 예산을 26억8백3십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을 복지법인 승가인 산하시설인 상락원으로 이전키로 결의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인도를 다시 부처님 땅으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와 관련한 문의나 투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불교전문강원 학인 모집

나란다삼장불학원은 불교교양대학, 불교대학·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전문불자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들과 법사·포교사 및 불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사)한국불교강원원에서 개설한 특별교육기관이다. 과목별 특강으로 경·울·논·선·밀교·의식 등 각 과목별로 한 과목씩 이수하여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며 스님들에게는 일어·영어·중국어 어학코스도 병설, 외국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일정 교육기간을 거쳐 수계하도록 하며 일반 사찰과 포교기관에 나아가 전범도생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다.

모집과정

- 사미과(沙彌科) : 사미율의·초발심자경문·치문경론·천수경·반야심경·아함경·예불의식·법외의식
- 사집과(四集科) : 서장·도서·선문활요·방등경·계율해설·비교종교학·구사론·장례의식·방생의식
- 사교과(四教科) : 능엄경·금강경·원각경·반야경·기신론·유식론·교단사·불교의식·기도의식
- 대교과(大教科) : 법화경·화엄경·정토사상(미타, 약사, 미륵, 밀교)·선문영송·전등록·삼론·교리발달사·제사의식
- 특별과정(외국어학과) : 영어·일어·중국어(회화중심)

교육기간 : 2년(과정별 선택, 통상반 가능)

개강일시 : 2002년 3월 9일 오후 2시

교수진 : 한정섭 박사, 김호암(한국불교통신대학원장), 남진각 스님(LA 대각사주지) 오희근 교수(전 동국대불교대학장), 최중안 교수(중앙승가대 교수), 진하 스님(예술대학 주임교수), 해인 스님(신흥사 주지) 외

강의시간 : 각 과별로 매주 월~목요일까지 오후 7~9시

접수문의 : 나란다삼장불학원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강원 내

나란다삼장불학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제6기 전수생 모집

(사)한국불교강원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 9호(작법무 기능보유자) 이신 三鎭 金海嶺 큰 스님의 범패(梵唄)와 범무(梵舞)를 전수교저 제 5기 전수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모집과정 : 기초과정
-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 교육기간 : 각 과정 4개월 기본(1년 과정)
- 모집기간 : 3월20일 ~ 4월20일까지
- 강의내용 :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본과정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전수바라 작법무 범의의식 강의(석문의 범)
	중등과정	전수바라, 다계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범의의식 강의(석문의 범)
	고등과정	사다리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범의의식 강의(석문의 범)
연구과정	대학과정	운심계, 삼귀의 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범의의식 강의(석문의 범)

- 강사진 : 한정섭 법사, 김진하 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작법무 보유자)
- 강의시간 : 매일 2, 4째주 수, 목요일 강의
- 특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전수자격증을 수여함.
- 문의처 : 한국불교예술대학 교학처 (☎ 02-969-2410, 498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사) 한국불교강원 내